

# 공연 활성화 한다더니... 버스킹 예산 '썩둑'

### 시의회 "특정단체 집중 우려" 사업 제동에 목포시와 마찰 예술계도 "거리공연 정착 찬물"

목포시가 버스킹 공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길거리 문화공연 사업'이 예산 문제 등으로 시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맞물려 외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재능 있는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에게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남도지역 길거리 문화 공연' 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초 시는 시내 버스킹 명소인 유달산 노적봉 미술관, 차 없는 거리, 북항 노을공원, 평화광장 등 5개 거점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22주간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 6000만원을 세웠다.

하지만 목포시의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1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길거리 문화공연 사업비 60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예결위 심의에 참여한 A의원은 "해상케이블카 개통을 앞두고 버스킹 공연의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소관 상임위 심의과정



지난해부터 북항 노을공원 등에서 민간차원의 버스킹 공연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매주 토요일 북항 노을공원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 모습. <목포시 제공>

에서 특정단체에 집중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돼 내려왔다"고 삭감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역 예술계에서는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거리 예술가를 육성해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거리공연 문화 정착이라는 긍정적 기능이 강할데 이를 무시

한 채 사업적으로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목포예총 한 관계자는 "여수시의 경우 버스킹 공연을 위해 연간 5억9000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며 "시가 조직개편을 통해 공연기획 담당을 신설하는 등 모처럼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의욕을 보이고 있는 데 시의회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지만 시의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보완해 올하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내년엔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 후배들을 위한 '아름다운 퇴장'

### 목포시 김창욱 단장·정효진 과장 명퇴 신청

"40년 가까이 목포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인사 시선이 지났음에도 후배들을 위해 꽃길을 마다한 59년 돼지띠들의 아름다운 퇴장이 지역에서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



김창욱 단장 정효진 과장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김창욱 도시발전 사업단장(4급)과 정효진 수산진흥과장(5급)이 후진들에게 승진 기회를 주기 위해 각각 39년과 38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김 단장은 지난 2016년 1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이후 200여명이 투입된 목포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등 원도심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김 단장은 "39년 동안 큰 문제없이 공직생활을 마치는 것이 부끄럽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지만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아름다운 퇴장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정 과장은 수산직으로 지난 2006년 12월 사무관으로 승진한 이후 수산식품지원센터, 북항 회 센터, 씨-푸드타운, 대양산 내 수산식품 지원단지 유치 등 굵직한 사업들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등 목포 수산업 발전을 이끈 산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정 과장의 명퇴는 소수 직렬인 수산직 인사에 승용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이들 명퇴에 따른 후속인사는 3월말 단행될 예정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전국체전 유치 준비 순조

### 종합경기장 윤곽...실사단 방문 앞 유치 서명운동

오는 2022년 '제103회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목포 종합경기장의 윤곽이 드러났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국체전 메인 스타디움으로 사용될 종합경기장이 대양동 산 124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13만6000㎡의 면적에 종합경기장과 보조경기장·부대시설 등이 갖춰진다. <조감도>

연면적 1만6100㎡에 건축면적 1만3515㎡ 규모에 800여대가 주차가능한 주차장도 마련된다. 관람석은 1만6000석이다. 종합경기장 건립에는 국비 200억원과 도비 230억, 시비 354억 등 총 784억원이 투입된다.

목포시는 시가 부담할 354억원을 기존의 유달경기장을 매각해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유달경기장의 현재 매각대금은 250~300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목포 종합경기장은 전국체전 개최 이후 사후 활용방안을 중점 고려해 '전문 체육시설+수익창출 시설+주민 중심 시설' 기능을 강화한 미래지향적

복합형 체육시설로 건설된다.

향후 종합경기장은 지역민의 건강한 삶 증진을 위한 '목포체육 인증센터', 체질 맞춤형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체질 맞춤형 건강센터', 온·오프라인으로 즐기는 '스포츠 체험센터, 스포츠 전문 아울렛, 기념품 숍 등으로 활용한다는 게 목포시의 구상이다.

또 기존 유달 경기장은 매각해 분양 아파트 50%, 웨어 하우스 20%, 공원 및 녹지 30%를 조성하게 된다.

한편 시는 오는 27일 대한체육회 실사단 방문을 앞두고 15만명을 목표로 전국체전 목포유치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

### 해양청 안전대책 수립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평진)은 잦은 안개와 어선들의 출어 증가 및 행락철 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봄철에 대비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봄철(3~5월)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건수(최근 5년)는 적은 편이나, 경계소홀 및 안전수칙 미준수 등 인적과실로 인한 충돌, 침몰 사고가 빈발하여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봄철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한 맞춤형 해상교통 안전대책에는 선박 점검 강화와 해방기 시설물 안전관리, 현장 중사자 대상 교육 등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활성화, 현장중심 협력체계 구축을 중점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목포해수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어업단체 등이 참여해 지역 해역 내 좁은 수로 등 선박 운항 위해요소를 발굴, 개선하기 위한 해역안전 개선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목포 역사 관광상품 개발·인프라 개선 시급"

### 서남권 상생발전 시민 대토론회

### "일자리·인구정착 공동전략 필요"

"목포가 경쟁력 있는 동북아 관광 거점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포다움'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관광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목포시와 목포대가 최근 공동 개최한 '서남권 지역 상생발전 시민 대토론회'에서 심원섭 목포대 교수는 "목포에 대한 뚜렷한 이미지가 없어 대외적으로 강력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도시이미지 개발과 함께 목포 이미지 개선을 위한 축제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목포가 동북아 관광 거점도시로 발전하는 것과 관련해 ▲관광자원성은 뛰어나지만 활용전략 부족 ▲숙박 등 관광인프라 절대 부족 ▲집객력 있는 매력적인 관광시설 부족 ▲해양관광도시 이미지에 맞는 해양체험시설 전무 ▲근대 역사유적의 관리 및 관광 상품화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그는 케이블카 연계한 관광자원 개



지난 13일 신안비치호텔에서 목포시와 목포대 공동주최로 '서남권 지역 상생발전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목포시 제공>

발과 근대문화 유산의 관광자원화, 항구 도시 이미지에 걸 맞는 해양관광명소 및 인프라 개발,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한 관광 사업 추진 등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관진 초당대 교수는 "서남권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보다 먼저 경제 통합을 이뤄 경제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영 세한대 교수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정착은 서남권 지자체의 공동 관심 사항으로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공동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주제 발표 후에는 신순호 목포대 교수의 진행으로 손용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최명식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성현 전남도 의회사무처 박사, 최조순 경기북부재단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 구례,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연수원/요양(병)원 변경가능
- 대572평, 건683평, 객58, 4층건물
- 연 3억이상 순수익 가능
- 전체리모델링(5억), 관광온천지구
- 매18억(대출8억포함, 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광주에서 40분
- 대지106평, 건물42평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시세 - 1억 1000만원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매매 - 8200만원
- 문의. 010-3605-5000